

방화구호를 다룬 정치
뉴스와 애를 푸는 정치

양이원영 보도자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02호 | E. yangyi.assembly@gmail.com | T. 02-784-8834 | F. 02-6788-6740

배포일 : 2021년 10월 13일(수)

전통시장 가스화재 점검 최근 6년간 70,678건 중 24,004건(34%) 부적합 화재 위험

-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미설치 7,997건, 금속배관 미설치 6,541건, 재질불량 5,657건 등 부적합 사유 40,374건
- 양이원영 의원 “전통시장 가스 화재 피해 규모 클 수밖에 없어, 가스안전시설 보완 시급”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가스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6~2021.6) 전통시장 가스시설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이 24,004건으로 확인됐다.

전통시장 가스시설 점검 건수는 2016년 23,946건, 2017년 15,710건, 2018년 18,391건, 2019년 19,624건, 2020년 36,875건, 2021년 6월 기준 9,264건 등 5년 반 동안 총 12만 3,810건이었다.

점검에서 휴·폐업을 하거나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53,132건을 제외한 70,678건 중 24,004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이는 34%에 이르는 높은 수치다.

부적합 유형으로는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미설치가 7,9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속배관 미설치 6,541건, 재질불량(고정 및 도색불량) 5,657건, 막음조치 미비 4,513건, 용기 환기불량장소 설치 3,317건, 용기보관실 체인 및 차양막 미설치 3,241건 등 총 40,374건에서 부적합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통시장에 가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재산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미비된 곳이 다수 확인됐다.” 며 “소상공인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스안전시설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첨부1 전통시장 가스시설 안전점검 결과

(단위 : 점포수,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6	
적합	10,228	43	7,314	47	4,740	26	7,451	38	13,469	36	3,472	37
부적합	7,631	32	3,844	24	2,352	13	3,938	20	5,040	14	1,199	13
기타*	6,087	25	4,552	29	11,299	61	8,235	42	18,366	50	4,593	50
합계	23,946	100	15,710	100	18,391	100	19,624	100	36,875	100	9,264	100

* 기타 : 휴·폐업, 가스미사용

*자료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 첨부2 전통시장 부적합 가스시설 유형별 현황

구분	주요 부적합 유형	건 수
1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미설치	7,997
2	금속배관 미설치	6,541
3	재질불량(고정 및 도색불량)	5,657
4	막음조치 미비	4,513
5	용기 환기불량장소 설치	3,317
6	용기보관실, 체인 및 차양막 미설치	3,241
7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작동불량	1,766
8	호스 T 사용, 호스 3m 초과 설치	1,088
9	계량기, 조정기 설치 불량	913
10	중간밸브 미설치	751
11	전기이격거리 미유지	264
12	기밀 성능 불량	76
13	소형저장탱크 설치 불량	60
14	그 외 부적합 사항	4,190
총 계		40,374

※ 부적합은 1개 점포에서 부적합이 2개 발견 시 각각의 부적합 유형에 중복체크 함.

*자료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